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지역정체성이
지방선거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정 일 두

지역정체성이 지방선거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승 종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정 일 두

정 일 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김 순 은

부 위 원 장 이 석 원

위 원 이 승 종



국문초록

한국의 선거투표율은 민주화 이후의 선거 이래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투표율 하락 현상은 적지 않은 우려를 부른다. 이상적인 시각에서 민주주의는 정치문제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대중이 대중을 다스리는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관심과 참여가 표출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며, 선거에서의 유권자 참여인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게다가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그 대표성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여러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화 된 선거의 투표율 저하 현상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지방선거의 투표율 저하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지향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제도로서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최근의 총 4번의 선거 동안 55%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정체성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영향요인으로 파악한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투표율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역정체성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이다. 따라서 투표율에 대한 숨겨진 영향요인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학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정체성 개념은 ‘정체성’에 관련한 논의와 ‘지역’과 관련된 논의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창조적으로 정립하였다. 그 결과 지역 정체성을 이루는 네 가지의 구성개념들까지 도출할 수 있었는데,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체계적으로 설정된 지역정체성이 실제로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0 제5회 지방선거’의 시군구별 투표율 230개 사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이용하여 고안된 투표율 모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지역정체성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을 각기 다른 독립변수로 두어 투표율 모형에 적용한 결과, 고안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충분한 유의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은 투표율에 대해 양(+)의 영향력을, 역사 정체성과 산업 정체성은 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네트워크 정체성은 투표율에 있어 다른 정체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 정체성과 산업정체성의 순이고 역사정체성이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투표율 저하 현상의 문제를 지역정체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정체성이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이라는 연구 결과 중에서 특히, 네트워크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이 보여준 결과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네트워크 정체성과 관련된 결과는, 지역정체성이 비록 지역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관련 조건보다 사람의 인식과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그 형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삶의 질이나 행복의 차원에서만 경주될 것이 아니라 민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문화 정체성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혈세 낭비라며 비난 받는 지역의 문화 축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문화 정체성이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는 지역의 문화 축제에 대한 인식을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지역정체성, 투표율, 민주주의, 투표율저하현상, 지역, 정체성

학번: 2012-22003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5
제2장 문헌연구 및 이론적 논의	8
제1절 투표 참여 이론	8
1. 사회경제적 지위모형	8
2. 동원투표모형	10
3. 합리적 선택 모형	11
4. 환경 및 제도 결정 모형	12
제2절 투표율 영향 요인 연구의 접근 방법	13
1. 미시적 차원	13
2. 거시적 차원	16
제3절 한국의 투표율 영향요인	19
1. 선거참여자요인	19
2. 선거환경요인	20
3. 선거제도요인	22
제4절 지역정체성연구	23
1.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24
2. 지역정체성과 언론매체	25
제3장 지역정체성의 개념구성과 측정	27
제1절 지역정체성의 개념	27
1. 정체성의 개념	27
2. 지역의 개념	29
3. 지역정체성의 개념구성	33
4. 지역정체성과 그 유사개념의 구분	36
1)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	36
2) 지역정체성과 애향심	37

제2절 지역정체성 개념의 이론적 위치	39
제3절 지역정체성의 구성개념과 그 측정지표	40
1. 네트워크 정체성과 그 측정지표	40
2. 역사 정체성과 그 측정지표	41
3. 문화 정체성과 그 측정지표	42
4. 산업 정체성과 그 측정지표	43
 제4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45
제1절 연구의 분석틀	45
1. 투표율 모형	46
2. 연구가설	46
제2절 데이터 수집방법	47
1. 종속변수	47
2. 독립변수	47
3. 통제변수	49
제3절 분석방법	49
제4절 분석결과	51
1. 기술통계	51
2.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54
3. 모형의 적실성 판단	55
4. 가설 검증	57
5. 투표율 모형의 도출과 그 의미	60
 제5장 결론	6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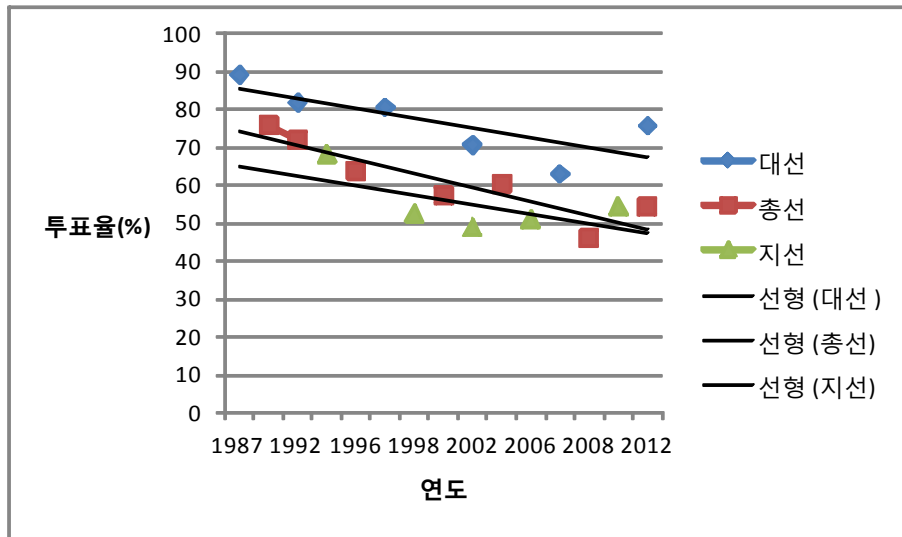
민주주의는 대중이 대중을 다스리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대중은 정치주체인 동시에 정치객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각에서의 민주주의는 정치문제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관심과 참여가 표출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표출할 공직자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된 선거들에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최장집(2002)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해야한다는 시각에서 투표율 하락 현상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관심을 촉구하기도 한다.

한편, 투표율은 ‘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표율은 실제로 대한민국이 민주화 된 이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1>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각 선거의 추세선들과 <표 I-1>에 나타나는 각 선거의 투표율 값을 보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구분하지 않

고 모든 종류의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 -1〉 민주화 이래 투표율 변화 추이¹⁾



〈표 I -1〉 민주화 이래 투표율²⁾

(단위: 년, %)

연도	1987	1988	1992	1995	1996	1997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10	2012
대선	89.2		81.9			80.7			70.8			63.0			75.8
총선		75.8	71.9		63.9			57.2		60.6			46.1		54.3
지선				68.4			52.7		48.9		51.2			54.5	

구체적으로, 지난 2007년의 대선 투표율은 63.0%로 1987년 제13대 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통령 선거의 89.2%보다 무려 26.2% 포인트 하락했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6.1%로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인 75.8%에 비해 29.7% 포인트나 낮았다. 지방선거 역시 이러한 흐름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 제4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1.6%로 1995년 제1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인 68.4% 보다 16.8% 포인트 낮았다. 이와 같이 모든 종류의 선거에 걸쳐 투표율 저하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선출된 공직자의 대표성 결여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그 대표성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여러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문제적인 투표율 저하 현상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방선거의 투표율 저하 현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지방선거가 점점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 즉,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선출되는 사람과 투표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장 좁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지향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제도로써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도입 초기 68.4%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 후 총 4번의 선거 동안 55%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저조한 투표율은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황아

란(2002)은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지방 정치인들이 지방을 도외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에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지방 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지방에서 특정 이해집단이 중앙에서 보다 더 쉽게 지방의 정치권력을 포섭하여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정상호, 2001). 지방선거는 가장 작은 규모의 선거로 여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은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 하락 현상은 중앙 정치에서보다 지방 정치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지방 선거에서의 저조한 투표율은 보다 쉽게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고, 특정 집단이 지방을 포섭하는 경우를 용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지방 혹은 지방자치라는 관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 개념을 제안하려 한다.

간단히 정의할 때, 지역정체성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지방자치 시대가 성숙할수록 주민들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지방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처럼 지역 차원에서 투표율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시도는 투표율 결정요인 연구에서 ‘지역’이라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충분할 것으로 판

단한다. 기존의 투표율 영향요인 관련 연구들은 주로 ‘지역’ 이외의 차원에서 영향요인들을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투표자 개인적 차원과 선거의 제도적 차원 그리고 선거가 실시된 시점의 상황적 차원 등에서 투표율 결정요인을 찾았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상의 배경과 목적 논의의 결과로서 본 연구는 지역 정체성의 차원에서 숨어있던 투표율 결정요인을 찾아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순서에 따라 해당 연구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연구의 순서는 크게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투표율에 대한 것이다. 먼저, 투표율 결정요인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투표참여 이론의 확인은 나중에 확인하게 될 지역정체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어줄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채, 어떤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안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투표참여이론을 바탕으로 투표율 영향요인 연구의 접근방법을 고찰한다. 이 과정을 통해 투표참여이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표율 부분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의 투표율 영향요인을 기존의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한국의 투표율 영향요인에 대한 분류의 기준을 마련해 본다. 발견된 분류의 기준은 한국에서의 투표율 영향요인을 많은 연구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

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앞서 논의된 투표율 영향요인 연구 및 투표 참여이론들과 결합하여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틀을 완성 시켜 줄 것이다.

연구 순서의 두 번째 부분은 제안된 ‘지역정체성’에 대한 파트이다. 이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데 공을 들이려 한다. 지역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투표율의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져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학이나 정책학 쪽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의 개념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는 먼저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개념인 ‘지역’과 ‘정체성’을 쪼개서 각기 따로따로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이후에 두 논의를 통합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에는 이렇게 설정된 ‘지역정체성’ 개념이 앞선 파트의 이론적 열개 위에서는 어떤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규명하여 생소했던 지역정체성의 개념규정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까지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연구 순서의 마지막 파트는 앞선 단계를 통해 설정된 지역정체성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정체성이 실제로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0 제5회 지방선거’의 시군구별 투표율 23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정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수와 투표율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숨어 있던 투표율 결정요인인 지역정체성이 결정요인으로서의 적실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정체성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의 네 가지 개념을 분별하여 각각의 개념이 투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경험적인 분석은 지역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투표율 저하 현상의 문제를 지역정체성이라는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다다르려 한다. 아울러 이 논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정체성 제고 노력들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추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문헌연구 및 이론적 논의

제1절 투표 참여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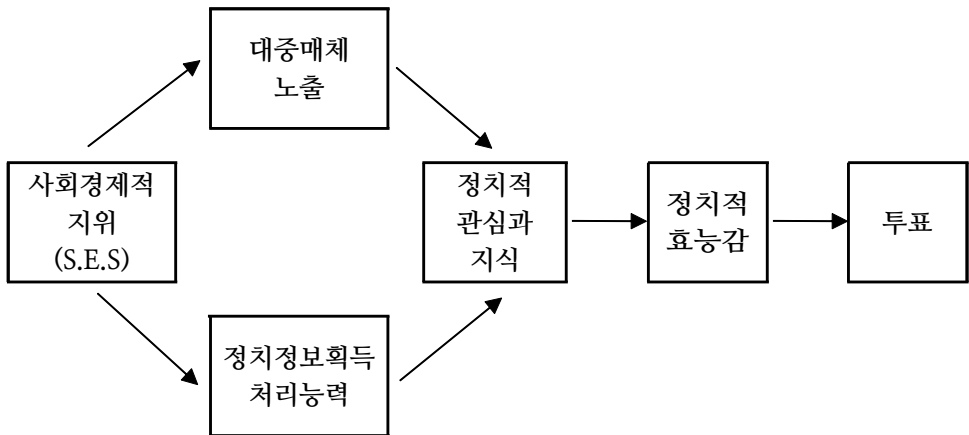
투표 참여 이론은 유권자들이 무엇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이는 투표율 변화의 원인 즉, 투표율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논의와 본질적으로 맥락이 같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투표율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온 내용이다. 투표 참여 이론의 대표격으로서 투표율에 관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모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모형(socio economic status)’과 ‘동원 투표 모형(mobilized voting)’, ‘합리적 선택 모형(rational choice)’ 그리고 ‘환경 및 제도 결정 모형(environmental & institutional decision)’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다음에서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경제적 지위모형

〈그림 Ⅱ-1〉에서 확인하듯이,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에서 투표율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은 정치적 효능감이다. 자신의 정치적 활동이 실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의 정도가 클수록 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주요한 변수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들에 주목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중매체에 자주 노출되며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결과적으로 정치

적 효능감을 높이는 정치적 관심과 지식을 많이 갖게 되어 투표행위와 같은 정치참여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의 설명인 것이다(김욱, 1998, 202-203). 즉,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교육, 소득, 거주지, 계층 등의 요소가 투표 참여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으며, 생활수준이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 II-1〉 투표 참여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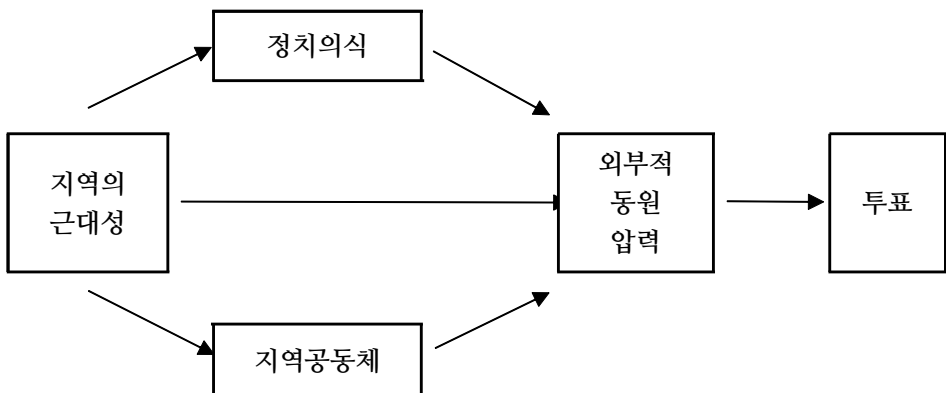


그러나 이처럼 체계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의 설명은 한국 상황에서의 실제적 설명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정치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큰 상황으로, 정치 불신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고학력 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치를 불신하거나 냉소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택, 2008; 정준표, 2008; 김욱, 1998; 박찬욱, 1992)

2. 동원투표모형

한편, 〈그림Ⅱ-2〉을 보면, 투표 참여에 대한 동원투표 모델의 아이디어를 읽어낼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지역의 근대성은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또한 지역의 근대성과 주민들의 정치의식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외부적 동원압력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이 압력이 투표 참여를 결정한다. 예컨대, 근대성의 정도가 낮은 농촌의 경우 주민들은 낮은 정치의식을 형성하고 지역공동체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외부적 동원압력을 쉽게 받아 동원투표 역시 그만큼 쉽게 일어난다(Kim and Koh, 1972). 이러한 동원투표 모델은 투표율에 관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인 도저촌고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동안 꾸준히 시골 지역의 투표율이 도시 지역의 투표율 보다 높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시골 사람들의 근대성 정도가 도시 사람들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다. 도시 사람들에 비해 근대성 정도가 낮았던 시골 사람들은 특수한 권력을 가진 세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서 투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Ⅱ-2〉 투표 참여에 대한 동원 투표 모형



3. 합리적 선택 모형

합리적 선택 모형은 투표참여를 비용과 이익의 효용문제로 접근한다. 합리적 선택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가인 다운스(Downs 1957)는 <그림 II-3>과 같은 투표참여의 모델로 개인의 투표 행위를 설명했다.

<그림 II-3> 다운스의 투표참여 모델

$$R = PB - C$$

R(reward) : 투표행위에서 개인유권자가 받는 보상

B(benefit) : 선호 하는 후보가 당선된 후에 실현될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오는 혜택

P(probability) : 유권자 개인의 투표가 유권자 자신에게 혜택을 가져올 확률

C(cost) :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유권자가 감수해야만 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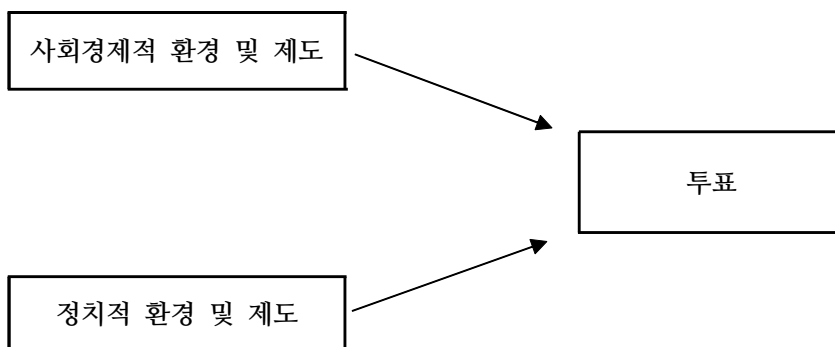
다운스의 투표 참여 모델에 의하면, 유권자는 투표 행위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그 비용보다 클 때 비로소 투표를 결심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P 향의 값은 매우 작은 것이 상식적이다. 수많은 유권자의 합으로 당해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므로 개인 한명의 투표가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가져올 확률은 매우 낮아져서 거의 0에 가깝도록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기재 효용인 PB 향의 값도 0에 수렴하여 상식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는 투표 행위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는다. 이른바 투표의 역설 (paradox of voting)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쨌든 투표 참여는 일정한 기회비용을 창출하고 이 기회비용의 크기

가 커지는 상황이 될수록 투표율은 낮아진다는 설명이 다운스의 투표 참여 모델의 핵심이다(김욱, 2005).

4. 환경 및 제도 결정 모형

환경 및 제도 결정 모형은 지역 사회의 환경적 요건에 주목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환경적 요건은 다시 정치적 변수를 중심하는 입장과 사회경제적 변수를 중심하는 입장으로 양분된다. 사회경제적 환경은 투표율에 대한 간접적인 요인일 뿐이라고 비난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환경 중시론은 후보자의 경쟁률 정도, 정당과 이익집단의 동원활동, 선거캠페인, 직접선거에서의 다수당의 지배정도,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의 요소들이 투표율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한다.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투표율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선거구의 도시화 수준, 선거구의 규모, 인구밀도, 노인인구와 젊은 층의 인구비율, 소수자집단의 비율, 거주자의 직업구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림 Ⅱ-4〉 환경 및 제도 결정 모형



제2절 투표율 영향 요인 연구의 접근 방법

연구에 있어 시각 또는 접근 방법은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연구자가 어떠한 접근 방법에 의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느냐에 따라 검증된 이론의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이론을 크게 살펴 본 후에 이를 일반화 하여 각 이론들이 어떠한 접근 방법을 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각 이론들을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살펴 본 투표참여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을 견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누가 왜 투표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환경이 투표율을 진작 시키는가?”에 중점을 둔 거시적 차원의 접근 방법이다.

1. 미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의 접근은 “누가 왜 투표 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다시 말해서 투표 행위를 개인의 차원에서 받아들여 개인이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미시적 차원의 접근 방법이라 하겠다. 미시적 접근에 해당하는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접근법은 앞서 살펴 본 사회 경제적 지위 모형을 주창했다. 모형에 따르면,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요소들, 예컨대 성(gender),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연령 등이 투표를 하는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에 적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 설명은 대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가기 전에 후보자로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알아보고, 투표장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공을 들여야 한다. 게다가 현대인들처럼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경우에 있어 이러한 노력은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용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다는 것이 기회비용 관점의 설명이다. 예컨대,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잡혀 있는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직장에 다녀야 하는 샐러리맨이 투표장 방문에 대하여 느끼는 부담감은 풍족한 노후를 즐기며 평일에도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보다 클 것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투표자의 특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누가’에 집중한 투표율 영향요인에 대한 접근은 모순적인 현상에 좌절하고 만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접근법에서 주장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율은 높아져가야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미시적 차원의 접근은 그 관심의 중심을 ‘누가’에서 ‘왜’로 이동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합리적 선택 모형이 ‘누가’에서 ‘왜’로 관심의 무게 중

심이 이동 된 대표적인 모델로 이해된다. 사회경제적 지위모형이 사회학적 마인드로 개인의 투표를 설명하려는 입장이었던 바와 달리, 합리적 선택 모형은 경제학적 마인드를 개인 투표 현상 설명에 이용한다. 합리적 유권자를 가정하고, 개인의 효용을 기준으로 $R = PB - C$ 의 간단한 수식에 의해 투표를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개인의 효용이 그 행위를 통해 감소하는 효용을 제하고도 남을 경우에 한해 개인은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선택 모형 역시 모순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한 개인의 표가 선거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확률을 의미하는 P 항에 해당하는 값이 선거의 규모가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만 선출하는 대선선거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느끼는 P 항의 값은 사표의 우려에 더해져 보다 급격하게 0에 수렴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투표를 한 사람의 합리성을 의심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투표의 역설(paradox of voting)이라 부르고 있다.

합리적 선택 모형이 갖는 투표의 역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다. 먼저 투표 참여 모형 식에 시민적 의무라는 D(citizen duty) 항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수정된 투표 참여 모형 식은 $R = PB - C + D$ 가 되는데 시민적 의무의 효과에 의해 투표 참여의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B에 대한 해석에도 수정을 가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원래 B 항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선택한 후보자가 당선되어 나에게 오게 되는 경제적 혜택인데 이와는 별개로 B 항에 투표 참여 자체가 가져오는 심리적 혜택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 행위에 대한 뿌듯함이 가져오는 심리적 혜택

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 ‘누가, 왜 투표를 하는가?’에 관심을 보였던 것과 달리 거시적 차원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 투표율을 진작 시키는가?’에 집중된다. 거시적 접근 방법이 미시적 접근 방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관심이 대상이 유권자가 아닌 투표율 자체에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각자 투표한 경우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집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접근 방법은 유권자 개인이 아닌 유권자 집단이 만들어내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소를 찾아낸다.

미시적 접근법을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에서 적용된 사회학적 방법은 거시적 접근법에서도 차원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미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모형에서 성(gender),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연령 등의 요인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성비, 평균 교육수준, 국민총생산(GNP), 직업군 비율, 평균 연령 등이 단위 선거의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집중한다. 또한 사람 개인이 아닌 사람들 집단 간에서 발생하는 정치의 측면에서도 거시적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정도, 인구의 규모, 인구밀집도 등이 주요 지표로 등장하고 있다.

미시적 접근법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모형이 투표의 역설에 봉착한 것처럼 거시적 접근법에서의 사회경제적 측면 연구도 투표율에 대한 영향의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병근(2006)에 따르면, 시민의 투표 참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발전 수준 및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렇게 투표율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경제발전이 투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선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는 안정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경제발전은 투표율과 음(-)의 상관 관계를 맺게 된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거시적 접근이 투표율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제도적 측면에서의 거시적 접근도 시도되었다. 법적·제도적 방법은 사회학적 방법과 달리, 다양한 정치제도의 효과에 주목한다. 선거제도(electoral system) 나 정당제도(party system)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Lijphart(1997)에 따르면, 다수대표제(majoritarian system)보다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가 높은 투표율과 관련이 있다. 이는 사표에 대한 의식으로 인한 연관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대표제 보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선거결과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있어 투표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합의된 하나의 방향에서 선거제도와 투표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정당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상관관계에 대한 각각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유도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선거제도의 종류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 주장인데,

이는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불러오는 경향이 있고 비례대표제가 높은 투표율과 연관되는 이유와 동일한 선상에서 뒷받침된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양당제 보다는 다당제가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품기에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제 하에서 더 높은 투표율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양당제의 경우 경쟁 정당 사이의 대안 및 정책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유권자의 선호와 정책간의 매치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투표율 결정요인 요인 연구의 접근 방법과 투표 참여 이론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1> 과 같다.

<표 II-1> 투표 참여 이론과 투표율 결정요인의 접근 방법

연구의 접근 방법	대표이론	관심요인
거시적 차원	동원투표모형	지역의 근대성, 지역공동체 등
	환경 및 제도결정모형	경제발전, 민주주의발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미시적 차원	사회경제적 지위모형	성, 나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등
	합리적 선택모형	효용, 기회비용 등

제3절 한국의 투표율 영향요인

지금까지 투표율 영향요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과 그 이론들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여 지금부터는 한국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주목을 받아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이라는 국가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작업은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와 그 투표율을 연구대상의 범주로 삼고 있으므로 한국의 투표율 영향요인에 대한 정리는 필수적이기도 하다.

정리의 결과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투표율 영향요인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기준을 사용했을 때 의미 있는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에서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분석할 때, ① 주된 행위자인 사람, ②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③ 그 환경에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한국의 투표율 영향요인에 대한 정리 역시 ① 선거참여자요인, ② 선거환경요인, ③ 선거제도 요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그 체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1. 선거참여자 요인

선거의 투표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많은 논문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한국에서 치러진 여러 선거의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유권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

이 선거참여자 요인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변수에 해당한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의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여성의 투표율이 2004년 총선과 2007년 대선에 걸쳐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의 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었다(조성대, 2010). 유권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를 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종수(2000)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혹은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는 학력과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학력과 높은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직업일수록 투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것과 다른 결과가 검증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김옥(2002)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학력과 높은 지위의 직업일수록 투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2. 선거환경 요인

투표율은 선거참여자에 기인한 특성 이외에, 선거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도시화와 선거경쟁 정도가 선거환경 요인에서 주로 다루어진 변수에 해당한다. 오랫동안 한국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화와 선거 경쟁 등이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도시화의 진전은 투표율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화의 진전은 근대화와 같이 이루어진고 근대화의 흐름

안에서 민주적인 의식이 자리 잡은 시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랜 시기에 걸쳐 농촌의 투표율이 도시의 투표율을 오히려 앞서는 다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도저촌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2000년대 이전 시기에서 치러진 선거들에서는 선거의 규모 즉,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와 관계없이 도저촌고 현상은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부분 도저촌고 현상이 흔들리는 투표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여전히 도저촌고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투표율 분포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윤천주(1994)는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인 정치문화에 주목하였다. 앞서 살펴 본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에 따르면 도시화와 투표율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도시화와 투표율 사이에 놓여 있는 매개변수로 작용하면서 그 관계의 속성을 전복시켜 버린 것이다. 낮은 정치의식이 주를 이루는 정치문화가 형성된 농촌에서는 관권, 금권 혹은 집단 압력에 의한 동원이 선거에서 쉽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최근에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나타나는 반(反)도저촌고 현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화 된 농촌사회가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투표 동원 압력이 줄어들어 도저촌고 현상이 둔화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환경 요인으로 선거경쟁 또한 주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황아란(1997)은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독립변수의 하나로 선거경쟁을 선택하였다. 선거경쟁 변수는 합리적 선택 모형에 근거할 때, 투표율과의 상관성을 적절하게 설

명할 수 있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면 그 누구도 선거결과를 선불리 예상하기 힘들어진다. 이때 유권자는 자신의 한 표가 지지 후보자의 당선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투표장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한 표가 유권자에게 선거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그 유권자가 얻는 편익은 커진다.

3. 선거제도 요인

선거가 어떤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가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로는 선거구제도(대선거구제 vs. 소선거구제), 의원선출방법(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 정당체제의 분절도(양당제 vs. 다당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보다는 대선거구제가, 그리고 다수대표제 보다는 비례대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김욱(2009)에 의해 밝혀졌다.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가, 대선거구는 비례대표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밝혀진 사실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결과이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다당제가 양당제 보다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김욱, 2009).

이와 같은 여러 선거제도 요인들의 영향력은 합리적 선택 모형에 의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사람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는 정당에 투표하여 여러 명의 당선자를 내는 비례대표제와 연결되고 그 결과 소수 정당들이 당선자를 배출하여 다당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각각의 선거제도적 상황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반대의 상황에서 보다 적어짐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결국 투표에의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에서의 투표율 영향요인을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2>와 같다.

<표 II-2> 한국에서의 투표율 영향요인

영향요인의 분류	세부요인
선거참여자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선거환경 요인	도시화, 선거경쟁
선거제도 요인	선거구제도, 의원선출방법, 정당체제의 분절도

제4절 지역정체성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결정요인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제안하고, 지역정체성 요인이 실제로 설득력 있는 투표율 결정요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지역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역정체성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구성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지역정체성이란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어떠한가’와 관련하여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강희경, 2002).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제로 하는 연구에서 긍정적 시각의 연구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의 초기에는 주로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소재로 이를 지역감정 또는 지역주의 투표와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 경우가 많았다(신광영, 1990; 이정복, 1993; 이갑윤, 1998). 특히, 이남영(1999)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지역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과거의 한국사회에서, 지역정체성은 주로 정치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연, 혈연, 학연의 극복은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위하여 매 선거마다 캠페인의 형식으로 강조되던 구호였음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우리의 역사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정체성을 지역주의라는 이름으로 득표의 매커니즘 속에서 교묘하게 이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선거에서까지도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갈등은 매 선거의 중심 시점에서 중요 이슈로 종종 부각되었다.

그러나 전 지구적 흐름인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반향으로 강조되는 지방화(Localization)의 흐름에 맞추어 최근에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주로 다루어졌

던 지역정체성 개념은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화의 흐름이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각종 축제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각 지방의 지역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새로이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정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지역정체성의 자원적 측면이 부각된 시각은 정치적인 지역정체성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김준(2002)은 지방의 지역정체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2. 지역정체성과 언론매체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지역정체성을 언론매체와 연결시켜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는 지역정체성이 다분히 본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한 노력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에서 어떠한 개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현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대상으로서 언론매체는 지역정체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정체성과 언론매체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지역정체성은 지역민들 사이에 공동체적 가치와 지식이 공유되어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는데 그 공유와 형성의 장을 언론매체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기반

을 두는 가치와 지식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은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영민, 1998).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은 지역정체성 형성 및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 간 의사소통의 장으로 언론매체 특히, 지역 언론매체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언론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수요자의 정신적 욕구 만족이라는 사회적 목적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여기서 수요자의 정신적 욕구란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의미하며 언론은 이러한 권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성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정체성과 언론매체 특히 지역 언론 기관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체성과 지역이미지, 지역참여도가 지역 언론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여 살펴본 이영원(2010)의 연구에서 지역성과 지역 언론 매체 이용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지역 주민의 거주기간이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주민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역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암시하고 있다.

제3장 지역정체성의 개념구성과 측정

제1절 지역정체성의 개념

본 연구는 투표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정체성 개념을 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체성에 관한 보다 정치한 개념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역정체성이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의 개념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의 개념과 정체성의 개념을 각기 따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이라는 개념과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서로 결합하여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지역정체성 개념에서 주된 개념은 정체성 개념이다. 정체성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지역정체성이 위치하는 것이다.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향후의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먼저, 지역정체성 개념의 본질적 개념인 ‘정체성’ 개념부터 살펴본다. 이후, 지역정체성 개념에서 정체성을 제외한 개념인 ‘지역’ 개념을 독립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논의 즉, 정체성 논의와 지역 논의를 바탕으로 합성개념인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구상한다.

1.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철학계에서 이루어져 왔다. 철학에서 다른 정체성은 ‘수적 유일성’, ‘질적 동일성’, 그리고 ‘나-동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수적 유일성은 ‘타자와 다름’, 즉 개별성에 정체성의 강조점을 둔다. 어떤 한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달라 서로 구분되는 것을 정체성의 논리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름을 강조한 수적 유일성의 개념만으로 정체성의 개념을 온전하게 설명해 낼 수는 없다. 자아 정체성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다름의 질문과 함께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혹은 ‘나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하는 질문도 함께 제기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라는 물음에 관한 고민에는 다름이 아닌 ‘같음’의 의미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철학적 접근이 바로 ‘질적 동일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체성은 소속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어떤 가족의 일원이며, 또 어떤 집단의 일원이며, 더 나아가 어떤 국가의 일원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은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한 개인은 다양한 사회집단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적 동일성은 단일하게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한 개인은 수적 유일성이 강조하는 다름과 질적 동일성이 주목하는 같음을 동시에 보유한다. 이렇게 얼핏 상호 모순적인 두 속성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통합시켜 인식할 때 비로소 한 개인은 그의 정체성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동일성’이다(이현재, 2005). 결론적으로 이상의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정리하면, 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타인과 어떻게 다르고, 동시에 타인과 어떻게 같은지를 통합적으로 인식한 결과적 이미지라고 귀결 지을 수 있겠다.

2. 지역의 개념

세계화 시대의 지역 개념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지역개념과는 달리, 공간, 스케일, 네트워크, 장소의 네 가지 핵심적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최재현, 2005). 먼저 세계화 시대의 지역은 탈영역성이 강조된다. 유동 공간(space of flows)은 자본과 인적자원의 국제간 교류와 같은 유동 흐름을 말하며 가변적이고 비고정적이며 탈영역적인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장소 공간(space of places)은 유동 공간속에서도 우월한 입지로 인해 새로운 성장 핵심지로 각광받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불변하고 고정적이며 영역적인 점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화 시대의 지역 개념은 이렇게 상반된 유동 공간과 장소 공간의 두 개념이 상호작용하면서 세계를 구성한다는 중립적이고 보완적인 시각이 강조된다.

세계화시대의 지역 개념에서 스케일은 분석차원과 관계가 깊다.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역을 재단하는 스케일은 지역 경계를 벗어나야 한다. 지역 경계라는 단순하고 1차원적인 스케일로는 세계화 시대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판 및 영화 관련 산업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는 서울의 충무로 주변 지역은 비록 생활 활동이 입지해 있는 충무로라는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는 지리적 경계가 아닌 네트워크라는 스케일 요소로 보다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지역 상호간 관계와 연결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담론이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초기의 네트워크는 불안정한 특징을 갖는다.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상호타협의 과정으로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

안정한 초기의 네트워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거쳐 안정된 네트워크로 변해간다.

공간, 스케일, 네트워크와 함께 세계화시대의 지역 개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마지막 시각으로 살펴볼 것은 장소이다. 스케일을 집단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내리면 개인의 의미가 경험적으로 부여된 공간인 장소에 다다른다. 세계화 시대 이전의 많은 학자들은 집단적 차원의 지역과 개인적 차원의 장소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 장소는 지역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념의 지위를 얻었다. 전통적인 지역개념은 영역성을 내포하여 분명한 경계설정에 초점을 두어 지역을 바라봤지만, 세계화 시대의 지역 개념은 비영역성과 비경계성과 같은 광범위적인 시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세계화 시대의 지역개념에서 다루어지는 네 가지 핵심적 시각인 공간, 스케일, 네트워크, 장소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간 개념의 변화나 스케일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적 스케일에 의한 장소의 강조 등이 모두 사회구성원이나 구성요소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진 세계화 시대의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구성 개념을 분석한 논의도 있다. Puddifoot(199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정체성은 지리적 구분과 지역 내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구성된다. 즉, 지역정체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차원으로 하여 구성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체성이 개인적 차원에서 인지하는 요인이라면 지역정체성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 차원에서 비롯되는 심리 문화적 요인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지역정체성 개념에 있어 지

역은 지역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민들의 생활양식은 물론 지역민들이 서로 연계하여 나타나는 네트워크 측면도 지니게 된다.

지역정체성은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는 개념들의 수준에서 바라봐야 함을 전제로 할 때,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산업 등과 같은 분야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계기석 외, 2001).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지역 개념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지역정체성 확립분야를 설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지역정체성 확립분야의 내용

분야	내 용
역사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 유적, 민주화 운동
문화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경관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출처: 계기석 외 2001, 24.

그런데 Johnston(1991)에 의하면,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장소(지역)는 물리적 환경, 인공 환경, 사회적 관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복합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하여야 한다<표 Ⅲ-2>. 이 견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역의 개념과 관련한 위의 두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해진다.

〈표 Ⅲ-2〉 인본주의적 시각에서의 장소의 구성요소³⁾

개념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의미
인본주의적 장소	물리적 환경	자연이 만들어낸 환경
	인공 환경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사회적 관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Johnston(1991)이 제시한 세 구성요소(물리적 환경, 인공 환경, 사회적 관계)를 계기석 외(2001)가 제안한 지역정체성 확립분야(역사, 문화, 경관, 산업)와 비교하여보면, 역사 분야는 인공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복합으로, 문화 분야는 물리적 환경과 인공 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복합으로, 경관과 산업 분야는 물리적 환경과 인공 환경의 복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관 분야는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산업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화 시대의 지역개념으로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인 네트워크를 추가하면 지역의 구성요소를 〈표 Ⅲ-3〉와 같이 네트워크, 역사, 문화, 산업의 네 가지로 재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리는 지역정체성의 성격을 고려한 지역의 구성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

3) Johnston(1991)에서 정리

〈표 Ⅲ-3〉 지역정체성을 고려한 지역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네트워크	인간적 교류, 연줄망, 지연, 학연, 혈연,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역사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 유적, 민주화 운동
문화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산업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3. 지역정체성의 개념구성

지금까지 지역정체성 개념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정체성의 개념과 지역의 개념을 차례로 논의한 후 지역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지역정체성을 고려한 지역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네트워크, 역사, 문화, 산업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구성요소를 추출한 논의만으로는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남는다. 지역정체성의 개념에는 ① 인식의 개념이라는 사고와 ② 그것이 개인 수준이 아닌 집단 수준에서의 개념이라는 사고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구성요소를 인식하는 주체의 인식체계에 따라 각기 다른 성질로 나타나는 개념이며 또한 그것은 개인정체성이 아닌 집단정체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개념임

을 주지해야 한다.

먼저 지역정체성에 대한 구성요소와 지역정체성의 인식 차원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개인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의 개념은 〈그림 Ⅲ-1〉과 같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1〉 한 개인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의 함수적 표현

개인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 = f (지역의 구성요소)

f : 한 개인의 정체성 인식 함수

지역의 구성요소 : 네트워크, 역사, 문화, 산업

이때, 개인의 정체성 인식 함수는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각 개인마다 인식의 수준은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각 개인이 느끼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인식 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갖는 그 지역의 정체성은 미미할 정도로 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석의 단위를 개인에서 지역으로 끌어올리면 〈그림 Ⅲ-2〉과 같은 함수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정체성의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서 〈그림 Ⅲ-2〉의 함수식은 ①지역정체성에 대한 구성요소와 ②지역정체성의 인식차원,

그리고 ③지역정체성의 집단 차원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지역정체성에 관한 함수식인 것이다.

〈그림 Ⅲ-2〉 지역 정체성의 함수적 표현

$$\text{지역정체성} = \sum_{k=1}^n f(\text{지역의 구성요소})$$

f : 개인의 정체성 인식 함수

n : 지역구성원의 수

지역의 구성요소 : 네트워크, 역사, 문화, 산업

각 지역 구성원의 인식 수준이 지역이 달라져도 집단적 차원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가정할 때, 〈그림 Ⅲ-2〉처럼 정의된 지역정체성의 개념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인식차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 된다. 이는 사회과학적 분석상의 중요한 이점이 만들어지는 지점이다. 개념이 단순화 된 만큼 그 개념을 현상적으로 포착하는 작업 역시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역정체성의 개념은 지역의 구성요소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가 된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구성요소인 네트워크, 역사, 문화, 산업에 대한 함수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정체성은 비로소 그 구성개념을 형성하는데 성공을 거둔다. 이를 도식하면 〈표 Ⅲ-4〉과 같다.

〈표 Ⅲ-4〉 지역 정체성의 구성개념

지역정체성			
네트워크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

4. 지역정체성과 그 유사개념의 구분

사회과학에서 한 개념과 그 개념과의 유사개념 간의 비교를 하는 일은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심을 두는 개념에 대하여 보다 정치한 시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주의와 애郷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를 비교하고, 이후에 지역주의와 애郷심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기로 한다.

1)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는 모두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지역 정체성은 그 지역을 근본으로 형성된 정체성이고 지역주의는 그 지역과 관련하여 형성된 사조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개념의 주체 역시 개인이 아닌 집단차원에 형성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도 양 개

념은 공통점을 갖는다.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 모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한 개인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 지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각 개념들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들이 특정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지에 따라 양 개념은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지역정체성에서의 지역은 일반적인 지역개념이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각각의 지역정체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지역주의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경향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발현된다. 이는 개발 독재 시절의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영남과 호남의 반목, “우리가 남이가?”와 같은 정치인의 발언 등이 이러한 지역주의가 발현된 현상들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정치요소의 편협적인 영향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반면에 지역정체성은 다양한 지역요소(네트워크, 역사, 문화, 산업)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서의 개념이다.

2) 지역정체성과 애향심

애향심을 어문학적으로, 그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고향의 출신자’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애향심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애향심은 지역정체성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기반 하는 개념인 반면에 애향심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념인 것이다. 예컨대 지역정체성의 예시로 ‘전라도의 지역정체성’ 혹은 ‘제주도의 지역정체성’은 말이 되지만,

‘전라도의 애향심’ 또는 ‘제주도의 애향심’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전라도 사람들의 애향심’ 또는 ‘제주도 사람들의 애향심’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애향심은 ‘전라도 사람의 애향심’ 혹은 ‘제주도 사람의 애향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애향심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서 적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한 개인에게서 애향심을 찾을 수 있는 동시에 애향심은 한 집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역정체성의 개념 구성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논문에서의 지역정체성 개념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한정한다. 지역정체성은 집단적 차원에서의 개념을 말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Ⅲ-5>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Ⅲ-5> 지역정체성과 유사개념간의 비교

	지역정체성	지역주의	애향심
개념의 범주	지역개념	지역개념	사람개념
개념의 성격	일반지역에 대한 개념	특수지역 (전라, 경상, 충청)에 대한 개념	일반지역에 대한 개념
개념의 주체 단위	집단	집단	개인 및 집단
영향요소	지역요소의 종합적 결과	정치요소의 편협적 결과	지역요소의 종합적 결과

제2절 지역정체성 개념의 이론적 위치

본 논문은 지역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구성하는 다소 과감한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감함에 학문적 안정성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개념 구성의 이론적 기반을 밝히는 작업은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정체성은 거시적 차원의 접근방법에 기반하고 있는 개념이다. 지역 정체성은 그 구성개념을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 차원의 접근방법은 개인의 속성에 관심을 두는 미시적 차원과 다르게, 성비, 평균 교육수준, 국민총생산(GNP), 직업군 비율, 평균 연령 등이 단위 선거의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요소 중에서 집합적 요소에 관심을 갖는다. 네트워크, 역사, 문화, 산업은 모두 집합적 성격을 갖는 요소들이다.

또한 지역정체성은 선거환경의 측면에서 투표율 영향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있는 개념이다. 지역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환경, 제도의 도식 중에서 환경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역정체성 개념을 개인 수준에서 벗어난 집단적 개념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지역정체성은 사람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지역정체성 개념의 이론적 위치는 아래의 <표 Ⅲ-6> 과 같이 나타나며, 이러한 이론적 위치의 확인을 통해, 지역정체성 개념은 비로소 학문적 안정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결과를 낳는다.

〈표 Ⅲ-6〉 지역정체성 개념의 이론적 위치

		한국의 투표율 영향요인		
		선거환경	선거제도	선거참여자
접근방법	거시적 차원	지역정체성		
	미시적 차원			

제3절 지역정체성의 구성개념과 그 측정지표

1. 네트워크 정체성과 그 측정지표

지역사람들 간의 교류인 네트워크의 정도가 투표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를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모형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이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알면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행위는 준거집단의 포괄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국토평탈, 2003). 따라서 지역사람 간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개인적 정체성은 그 지역의 지역정체성으로 치환해도 무방하다.

네트워크 정체성이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태어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그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표는 특별히 ‘토박이 비율’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토박이들 사이에는 광범위하고 강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데 큰

우리가 따르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네트워크 정체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변수로 그 지역의 장기거주 가구 비율을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그 지역에서 태어난 토박이는 아니지만 한 인간이 성인이 되는 시간인 20년을 한 지역에서 거주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토박이에 버금가는 네트워크를 그 지역에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년 이상 장기거주 가구비율’은 네트워크 정체성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역사 정체성과 그 측정지표

정체성은 일종의 상징적 구별 짓기의 속성을 갖는다(이영민, 1999). 따라서 지역정체성 역시 지역에 기반한 어떤 요소를 이용하여 상징적 구별 짓기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지점에서에서 바로 지역정체성의 구성 개념 중 하나인 역사정체성이 발견된다. 실제로 역사에서 발견되는 사건들이 그 지역의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상징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은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공간에 묶어 놓은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박물관의 수는 그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박물관이 대개 큰 자본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그 지역의 박물관의 수를 그 지역 인구로 나눈 수치’를 지표로 사용하면 더 적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각 지역민들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지역주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 후, 혼돈의 시기와 군부독재의 시기를 차례로 거치면서 축적된 지역주의는 민주화가 이룩된 현재에도 여전히 그 위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식적으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지역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을 더미(dummy)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정체성을 잡아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 정체성과 그 측정지표

지역정체성의 세 번째 구성개념은 문화정체성이다.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자체적으로 정보(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국토포털, 2003). 공공도서관은 지역관련 문헌과 문화 창출의 중요한 매개 자원인 책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정보 및 문화의 측면에서 지역정체성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화 축적과 생산의 요람이 되는 공공 도서관 수로 그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도서관 역시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건축물인 관계로 ‘지역인구로 나눈 공공 도서관 수’의 값이 보다 적실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축제 역시 문화정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지녔다. 지역축제는 특별한 테마를 갖고 기획된다. 그리고 그 테마는 그 지역의 문화와 연관이 깊다.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기획할 수 있는 축제의 수도 많아지는 것이

다.

4. 산업 정체성과 그 측정지표

지역정체성의 마지막 네 번째 구성개념은 산업정체성이다.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거주와 중요한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주목받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산업정체성은 지역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1997년에 시행한 「인구이동특별조사」를 보면 인구이동요인으로 상정되었던 직업, 주택, 가족, 교육, 주거근린 환경, 자연환경 기타 요인 중에서 직업과 주택 요인이 전체의 과반 비율이 넘을 정도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구하기 위한 그 지역의 산업 환경 수준, 그리고 아름답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한 그 지역의 주택환경 수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표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정체성의 구성개념인 산업정체성을 포착하기 위한 지표를 찾아야만 한다.

지역의 좋은 산업 환경이 산업정체성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지역의 사업체 수가 산업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타당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정체성 역시, 지역의 산업은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있을 때에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인구로 나눈 값을 실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환경 수준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환경 측면에서의 산업정체성은 관광산업에 주목하여 지표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지역들은 ‘굴뚝 없는 공장’ 혹은 ‘미래인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조건이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산업정체성은 관광산업에 주목하여 ‘지역의 관광지 방문객 수’로 측정하면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객이라는 존재는 각 지역의 환경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것이며, 또한 방문객은 유명하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아질수록 더 늘어날 것이므로 산업정체성의 질과 양 모든 측면을 고려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산업정체성은 비관광산업 측면에서의 지표와 관광산업에서의 지표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Ⅲ-7> 지역정체성의 구성개념과 그 측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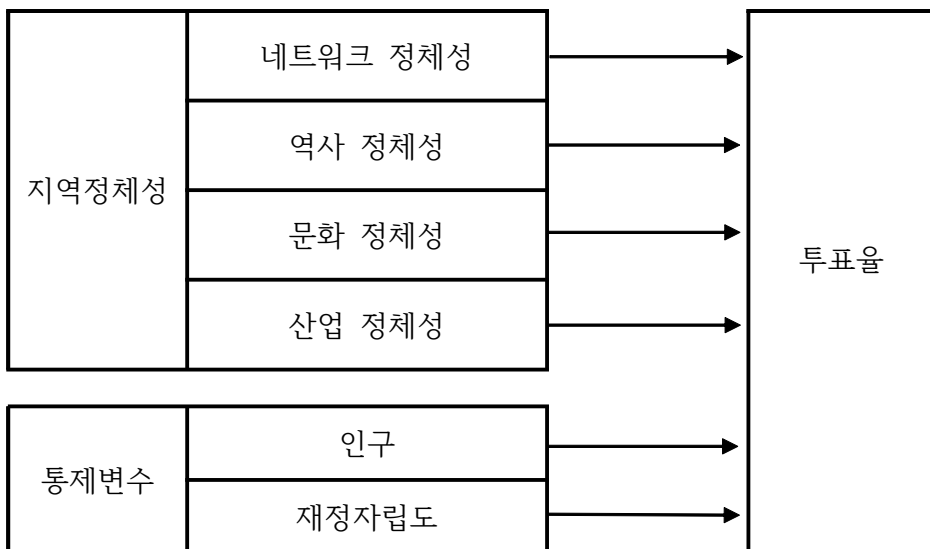
독립변수	지표
네트워크정체성	토박이비율(%)
	20년 이상 장기거주 가구비율(%)
역사 정체성	지역인구 만 명당 등록 박물관의 수(개)
	지역주의 유무(1 or 0)
문화 정체성	지역인구 만 명당 공공 도서관 수(개)
	지역축제의 수(개)
산업 정체성	지역인구 천 명당 사업체의 수(개)
	지역관광지 방문객수(명)

제4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제1절 연구의 분석틀

지역정체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지역정체성은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의 총 네 가지 구성개념을 갖는다.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면 다음의 〈그림 IV-1〉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이 만들어진다. 부연하건대,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체성이 투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그림 IV-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의 네 가지이며 통제변수는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두 가지이고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투표율 한 가지이다.

〈그림 IV-1〉 연구의 분석틀



1. 투표율 모형

연구의 분석틀에 기초한 투표율 모형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의 <그림 IV-2>와 같다. 지역정체성은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의 총 네 가지 구성개념을 가지며 각각의 구성 개념은 두 가지의 지표로 그 정도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IV-2> 투표율 모형

$\text{투표율} = \text{상수} + b1 \cdot \text{네트워크 정체성} + b2 \cdot \text{역사 정체성} + b3 \cdot \text{문화 정체성} + b4 \cdot \text{산업 정체성} +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정체성 : 자신이 태어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토박이 비율) + 20년 이상 장기거주 가구비율 ▪ 역사 정체성 : 지역인구 만 명당 등록 박물관의 수 + 지역주의 유무 ▪ 문화 정체성 : 지역인구 만 명당 공공 도서관 수 + 지역축제의 수 ▪ 산업 정체성 : 지역인구 천 명당 사업체의 수 + 지역관광지 방문객수

2. 연구 가설

<그림 IV-2>의 투표율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의 네

가지 이다.

〈가설 1〉 : 해당 지역의 다른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해당 지역의 투표율은 네트워크 정체성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 해당 지역의 다른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해당 지역의 투표율은 역사 정체성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 해당 지역의 다른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해당 지역의 투표율은 문화 정체성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 해당 지역의 다른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해당 지역의 투표율은 산업 정체성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제2절 데이터 수집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투표율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2010년에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의 시군구 투표율 데이터이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홈페이지(www.kossda.or.kr)에서 ‘KOSSDA 주요통계시트’ 중 ‘시군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2. 독립변수

첫 번째 독립변수인 네트워크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표

중에서 토박이 비율은 통계청에서 얻은 ‘2010년 현 거주지, 성 및 출생지 유형별 인구-시군구’ 자료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 인구와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인구를 합한 값을 출생지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해 냈다. ‘20년 이상 장기거주 가구비율’ 자료도 통계청 자료로부터 산출해 냈다. ‘2010년 거주기간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자료에서 ‘거주기간-계’ 가구수를 분모로 두고 ‘20~25’와 ‘25년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더한 값을 분자로 한 값에 100을 곱한 수치가 ‘20년 이상 장기거주 가구비율’ 지표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역사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표 중 ‘지역인구 만 명당 등록 박물관의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시군구별 박물관의 수’를 통계청의 ‘e-지방지표’로부터 얻은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하여 산출했다. 역사 정체성의 두 번째 지표인 ‘지역주의 유무’는 조사대상의 시군구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1을, 그렇지 않은 시군구에는 0을 직접 코딩하였다.

문화정체성의 첫 번째 지표인 ‘지역인구 만 명당 공공 도서관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시군구별 공공 도서관의 수’를 통계청의 ‘e-지방지표’로부터 얻은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하여 산출했다. 문화정체성의 두 번째 지표인 ‘지역 축제의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통계포털 (<http://stat.mcst.go.kr>)’에서 ‘2010 지역축제 총괄표’를 통해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 정체성의 첫 번째 지표인 ‘지역관광지 방문객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에 조사한 ‘시군구별 관광지방문객 수’ 자료를

통계청으로부터 내려 받았다. 두 번째 지표인 ‘지역인구 천 명당 사업체의 수’는 ‘KOSSDA 주요통계시트’ 중 ‘시군구 자료’로부터 획득하였다.

3. 통제변수

첫 번째 통제변수인 ‘2010년 시군구별 인구’ 자료와 ‘2010년 지자체 재정자립도’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홈페이지⁴⁾에서 ‘KOSSDA 주요통계시트’ 중 ‘시군구 자료’를 통해 정리되었다.

제3절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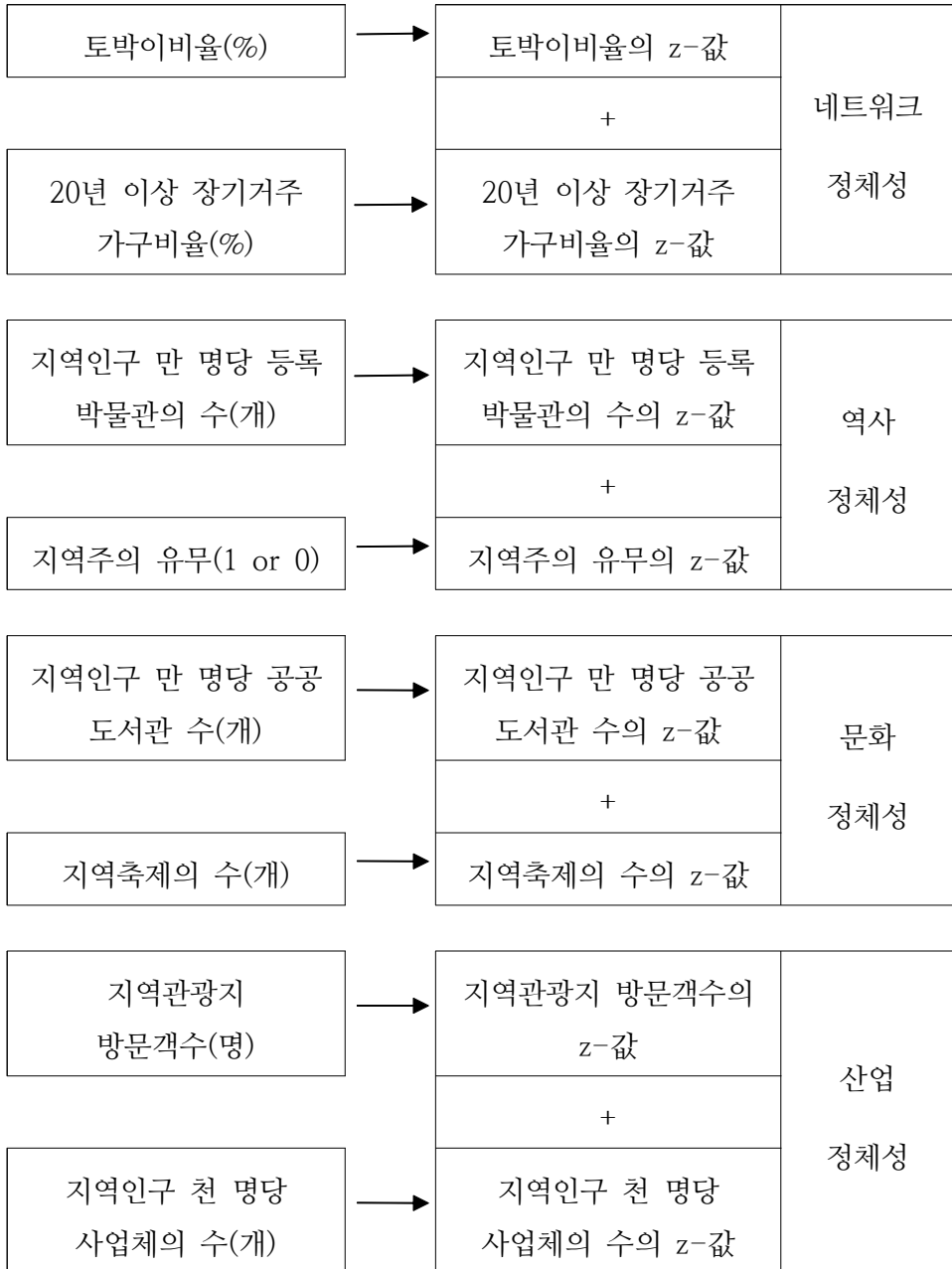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이 주를 이룬다. 다중회귀분석은 두 가지 이상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목적에 적합한 통계분석 방법이다.

다만, 각 독립변수 즉, 네트워크 정체성 · 역사 정체성 · 문화 정체성 · 산업 정체성의 값을 지표로부터 산출하기 위해서 ‘z-값 (z-score)’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였다. 일단, 각 독립변수 하나 당 두 개 씩, 총 8개의 지표 각각은 z-값으로 환산된 새로운 지표로 전환된다. 그리고는 각 변수에 해당하는 변환된 두 지표의 값은 서로 더해져서 해당 독립변수의 값이 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표에 해당하는 개념들

4) www.kosdda.or.kr

이 서로 범주나 스케일에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 분석의 방법을 도식하면 다음의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각 독립변수의 값 산출 방법



이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하나의 독립변수의 값이 되는 두 z-값 환산 지표는 각각에 합당한 가중치를 두고 더해야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가정하고 단순 합을 해당변수의 값으로 받아들인다. 좀 더 정치한 데이터 값은 다음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덧붙여, 이상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 중 하나인 'IBM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제4절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의 대상이 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의 시군구 투표율은 총 230개의 사례를 다룬다. 총 230개의 사례 중에서 산업정체성의 한 지표인 '지역 관광지 방문객 수'에서 총 39개의 사례에서 결측값이 존재하여 산업 정체성의 사례 수는 191개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회귀분석이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하나당 20개 정도의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독립변수는 총 4 가지이므로 80개 이상의 사례 수가 분석 될 경우 소기의 예측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최소 191개에서 최대 230 개 이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표 IV-1〉을 보면, 종속변수인 투표율의 평균은 60.1180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체성의 구성개념들인 네 변수 중에서 산업 정체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변수는 평균 값이 0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언급 했듯이, 해당 변수들이 z-값으로 전환된 지표들의 합으로 사례 값이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산업정체성도 평균값이 0이 되어야 하지만 결측값이 반영되어 실제로 0에 근접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표 IV-1〉의 하단부에는 독립변수를 이루는 각 지표들의 기술통계량이 표시되어있다. 이 값들은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 도출된 회귀식을 실질적으로 해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독립 변수들은 각 지표들의 z-값의 합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각 독립변수들의 한 단위라는 개념은 또 다시 지표들의 실제 단위로 환산되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 환산의 과정에 필수적인 자료가 바로 지표들의 기술통계량이다.

〈표 IV-1〉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종속변수	투표율	60.1180	9.61685	230
독립변수	네트워크 정체성	.0000	1.93580	230
	역사 정체성	.0000	1.36800	230
	문화 정체성	.0000	1.52989	230
	산업 정체성	-.0742	1.21799	191
통제변수	인구	219633.33	210656.037	230
	재정자립도	28.19	16.557	230

네트워크 정체성	토박이비율(%)	50.1362	16.16012	230
	20년 이상 장기거주 가구비율(%)	24.5768	19.16200	230
역사 정체성	지역인구 만 명당 등록 박물관의 수(개)	.2536	.41372	230
	지역주의 유무(1 or 0)	.63	.485	230
문화 정체성	지역인구 만 명당 공공 도서관 수(개)	.2481	.18722	230
	지역축제의 수(개)	3.37	2.874	230
산업 정체성	지역관광지 방문객수(명)	4125444.62	4150200.072	193
	지역인구 천 명당 사업체의 수(개)	72.232	35.4992	228

2.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회귀분석 방법이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귀식에 투입되는 독립 변수들 사이에는 상관성이 낮아야 한다. 투입되는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일수록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조사에서 다루는 변수들 사이에 무상관의 존재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따른다. 사회의 모든 현상과 개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독립변수들 사이의 완벽한 상호 독립을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로 인해 독립변수들의 개별 설명변량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중 공선성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공차한계나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공차한계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공차한계의 값이 0.1 이하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값이 0.1 이하일 때, 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공차한계에서처럼 분산팽창계수에서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값의 기준은 10이다.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인 경우라면 다중공선성이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표 IV-2>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비롯한 통제변수에서도 모두 공차한계가 0.1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분산팽창계수 역시 10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의심은 버려도 된다.

〈표 IV-2〉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계수 (VIF)
네트워크 정체성	.314	3.187
역사 정체성	.597	1.675
문화 정체성	.690	1.449
산업 정체성	.930	1.076
인구	.499	2.006
재정자립도	.409	2.443

3. 모형의 적실성 판단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 내지 모형의 적합도는 F-통계량의 값으로 검정할 수 있다. 〈표 IV-3〉에서 보듯, F-통계량의 값은 107.263 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00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F-통계량이 충분히 크고, Sig. F = 0.000 으로 그 값이 0.05 보다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투표율 모형은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즉,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변수와 두 가지의 통제변수로 이루어진 투표율 결정 모델은 투표율을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IV-3〉 모형의 적합도 판단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3665.082	6	2277.514	107.263	.000
	잔차	3906.857	184	21.233		
	합계	17571.939	190			

본 연구에 제안된 투표율 모형은 모형의 설명력에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R-square 나 수정된 R-square 값으로 판단하는데 〈표 IV-4〉에서처럼 0.882 나 0.778 라는 수치는 제안된 투표율 모형이 투표율의 총 변동의 88.2 % 내지는 77.8 %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R-square 값인 0.769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4개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인 투표율을 예측하는 결정모형을 따르면 단순히 투표율의 평균으로 예측할 때 보다 오차를 77.0 % 감소시킨다는 사실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투표율 모형은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4〉 모형의 설명력 판단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882	.778	.770	4.60792

4. 가설 검증

〈표 IV-5〉 제 5대 지방선거의 투표율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0.0% 신뢰구간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값	상한값
1	(상수)	60.291	.942		64.036	.000	58.734	61.847
	네트워크 정체성	3.618	.308	.728	11.735	.000	3.108	4.128
	역사 정체성	-.555	.316	-.079	-1.755	.081	-1.078	-.032
	문화 정체성	1.643	.263	.261	6.245	.000	1.208	2.077
	산업 정체성	-1.179	.285	-.149	-4.141	.000	-1.650	-.708
	인구	-0.000 00605	.000	-.133	-2.693	.008	.000	.000
	재정 자립도	.038	.032	.065	1.201	.231	-.014	.090

〈가설 1〉 : 해당 지역의 다른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해당 지역의 투표율은 네트워크 정체성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표 IV-5〉의 회귀분석 결과는 네트워크 정체성과 투표율 간의 〈가설 1〉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선, 유의확률이 0.10 이하로 네트워크 정체성은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네트워크 정체성으로 강화된 지역정체성으로 인해 동원투표모형의 이론적 상황이 변주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이 이론적으로 위치하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동원투표 모형은 지역의 근대성이 낮은 정치의식과 권위주의적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외부적 동원 압력에 의해 투표하게 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정체성으로 강화된 지역정체성은 주민들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추구 이익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실현의 방법으로 정치의식을 고양 시키거나 지역공동체적 해결을 시도해 보는 움직임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이 두 흐름은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동원 압력으로 작용하여 중국에는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가설 2〉 : 해당 지역의 다른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해당 지역의 투표율은 역사 정체성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역사 정체성과 투표율 간의 정(+)의 관계를 짐작한 〈가설2〉는 〈표 IV-5〉의 회귀분석결과에 근거했을 때 90%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방향이 예상과 달리 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가 나왔다. 역사정체성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인 B값이 -0.555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정체성과 투표율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지역정체성이 이론적으로 위치하는 환경 및 제도 결정모형의 이론적 측면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역사 정체성이 강한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지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처럼 역사 정체성이 강화 될수록,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현실의 경제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대한 실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실망은 곧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지난 과거의 영광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하여 현실을 비판할 경우에 투표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생겨버리고 만다.

〈가설 3〉 : 해당 지역의 다른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해당 지역의 투표율은 문화 정체성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문화 정체성이 커질수록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3〉은 〈표 IV-5〉의 회귀분석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유의확률이 0.000 으로 문화 정체성은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문화 정체성이 투표율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이유 역시, 동원투표모형의 변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공공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축제를 즐기면서 빠르게 민주적 의식이 고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체성의 신장으로 강화된 지역정체성은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민주성이 보다 신장된 내일을 꿈꾸게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주적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지역공동체에도 민주적 문화가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문화적 자부심으로부터 발현되는 내부적 동원압력이 주민들을 투표소로 달려가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투표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설 4〉 : 해당 지역의 다른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해당 지역의 투표율은 산업 정체성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산업 정체성이 커질수록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4>는 <표 IV-5>의 회귀분석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다만, 유의확률이 0.000 으로 매우 낮게 나오기 때문에 산업 정체성이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가설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두 변수 사이에 정(+)의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회귀 계수인 B값이 -1.179로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산업정체성이 커질수록 지역의 투표율은 낮아짐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지역정체성이 이론적으로 위치하는 거시적 차원의 대표 이론인 환경 및 제도 결정 모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및 제도 결정 모형은 사회 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환경을 중시 여긴다.

지역 산업이 발달하고 관광객이 느는 등의 변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기반 소득 창출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도 하지만 반대로 산업 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높은 인구밀도, 범죄율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부정적 지역정체성을 만들기도 한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지역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인식체계를 가진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된 미래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들여 투표장으로 갈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봐야 한다.

5. 투표율 모형의 도출과 그 의미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표 IV-5>의 회귀분석결과에 근거한 회귀식을 이용한 투표율 모형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투표율} = 60.291 + 3.618 \times \text{네트워크 정체성} - 0.555 \times \text{역사 정체성} + 1.643 \times \text{문화 정체성} - 1.179 \times \text{산업 정체성} + e$$

도출된 투표율 모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는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다면,

첫째, 네트워크 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율은 3.618 %p 커진다. 둘째, 역사 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율은 0.555 %p 작아진다. 셋째, 문화 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율은 1.643 %p 커진다. 넷째, 산업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율은 1.179 %p 작아진다.

이를, 지표의 수준에서 실질적인 의미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보다 세밀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첫째, 지역의 토박이 비율이 약 8%p 증가할 때 투표율은 3.618 %p 커진다. 둘째, 해당 지역에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약 10 %p 증가할 때 투표율은 3.618 %p 커진다. 셋째, 지역인구 만 명당 등록 박물관의 수가 대략 0.2 개 증가할 때 투표율은 0.555 %p 작아진다. 넷째, 지역인구 만 명당 공공 도서관 수가 대략 0.09 개 증가할 때 투표율은 1.643 %p 커진다. 다섯 째, 지역축제의 수가 대략 1.4개 증가할 때 투표율은 1.643 %p 커진다. 여섯 째, 지역관광지 방문객수가 약 210만 명이 증가할 때 투표율은 1.179 %p 작아진다. 일곱 째, 지역인구 천 명당 사업체의 수가 약 17개가 증가할 때 투표율은 1.179 %p 작아진다.

요컨대, 지역정체성 구성 변수 중에서 네트워크 정체성이 투표율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문화 정체성과 산업정체성의 순이며, 역사정체성이 가장 약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네트워크 정체성은 투표율에 있어 다른

정체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 수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역정체성이 지역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인식과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논문은 선거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하여 민주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연결선상에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작업은 투표율 하락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야만 그 요인을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방안까지 강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글머리에서 주지하였듯, 본 연구의 목표는 지역정체성이라는 개념의 투표율 영향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이론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투표참여 이론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모형, 동원 투표 모형, 합리적 선택 모형, 환경 및 제도 결정 모형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네 이론을 한 수준 위에서 조망하는 시각으로 투표율 영향요인 연구의 접근 방법으로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논의하며 이 기준으로 앞선 네 가지의 투표참여이론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 다음으로 범위를 한국으로 좁혀 한국에서는 투표율 영향요인으로 어떤 변수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선거참여, 선거 환경, 선거제도의 세 가지 요인의 틀에서 분류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종속변수인 투표율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독립변수인 지역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였다.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를 ‘지역’과 ‘정체성’의 두 개념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속성을 추출해내어 이후에 종합하는 전략으로 지역정체성의 구성 개념에 다가섰다. 그 결과, 지역정체성은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의 네

가지 구성개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지역정체성의 투표율 영향요인으로서의 타당성을 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지역정체성의 구성개념 네 가지를 각기 다른 독립변수로 두어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시군구 수준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충분한 유의성을 보여주었고,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은 양(+)의 영향력을, 역사 정체성과 산업 정체성은 음(-)의 영향력을 투표율에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지역정체성은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임이 분명해짐과 동시에 그 영향의 성격은 복합적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삶의 질이나 행복의 차원에서만 경주될 것이 아니라 민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끔씩 지방자치단체들의 혈세 낭비라며 비난 받는 지역의 문화 축제도 그 축제를 개최하는 행위를 통해 지방의 인지도 상승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장려될 힘을 얻었다. 투표율의 영향요인으로 문화 정체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8). 투표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1(2). 75-102.

계기석, 천현숙. (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방안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강희경. (2002). 지역주의, 지역주의적 투표 그리고 지역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19(2). 21-48.

김준. (2002).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만들기. *경제와 사회*. 53(3). 36-62.

김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집문당.

김욱. (2005).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서울: 집문당.

김욱. (2009).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현대정치연구*. 2(1). 175-196.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선거전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보*, 26(3): 153-174.

신광영. (1990). 투표 행위와 지역주의.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335-352.

신원득. (2001). 지역간 인구이동분석과 지역정체성 확립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6. 41-57.

윤천주. (1994). 투표참여와 정치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이남영. (1999). 1998년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의 관점에서. 조중빈 편. *푸른 길*. 13-42.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지리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5(2). 1-14.

이영원. (2010). 지역 특성과 지역민 만족도에 따른 지역 마케팅 전략 :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춘계광고학술세미나*. 132-136.

이종수. (2000).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집*. 31. 87-106.

이현재. (2005). '정체성(Identity)'개념 분석: 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 *철학 연구*. 71(1). 263-292.

정상호. (2001). 한국사회의 지역권력과 자영업집단의 이익정치. *사회연구*. 2001년 가을 2호.

정준표.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제18대 총선과 제17대 총선의 비교. *현대정치연구*. 1(2). 37-74.

조성대. (2010).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선거구제 비교. *현대정치연구*. 3(2). 115-150.

지병근. (2006).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투표율에 미친 영향 : 신생민주체제에 대한 교차국가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2(2), 5-32.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후마니타스.

최재현. (2005). 세계화 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7.

황아란. (1997).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4), 285-298.

황아란. (2002). 지역주의와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한국행정학보*, 36 (2).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Kim, Jae-on and B.C.Koh. (1972). Electoral Behavior and Soci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 Aggregate Data Analysis of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34, 825-829.

Campbell, A.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Lijphart, Arend.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1-14.

Puddifoot, John E. (1995). Dimensions of community identit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5(5), 357-370.

국토포털. 2003. 한국지리지 충청권.

(<http://www.land.go.kr/portal/reference/publication01.do>)

통계청. (1998). 인구이동 특별조사보고서 1997

통계청. e-지방지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계포털.

문화체육관광부. 2011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Regional Identity on Local Election Turnout

Ildoo Ch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lection turnout in the South Korea has been decreasing continuously since after democratization. This turnout decline phenomenon is not less concern. Ideally democracy cannot run without positive concern and participation of masses. Because election is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expressed such concerns and participations, the fact of low turnout means crisis of democracy. Furthermore, the official elected with such an low turnout tends to be in difficult situation to get enough support to make several public policy real because of the representativeness limit.

This paper focuses especially on the turnout decline phenomenon of local election. Because it is true that local election is having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n terms of the grassroots democracy which is the

goal of developing democracy. Unfortunately, the turnout of local elections during the last four elections has recorded humble number, below 55%.

Based on awareness of these issues, this paper shows one concept which is 'regional identity' as one factor influences turnout. To make turnout up, finding factors influence turnout out is the first step. In this context, regional identity is some new factor that has not treated before. This process is going to be meaningful in terms of revealing some hidden variable. The concept of regional identity in this study has creatively been established with analyzing and mixing arguments about 'region' and 'identity'. After this, it has been possible to get four constructs of 'regional identity'. These are 'network identity', 'historical identity', 'cultural identity', and 'industrial identity'.

The concept, regional identity has been test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turnout model with the data, '2010 the 5th local election' 230 cases. As a result of application the regional identity four constructs into the turnout model, the regression get to be enough acceptable statistically. Specifically, 'network identity' and 'cultural identity' have positive relation with turnout. 'historical identity' and "industrial identity" have negative relation with turnout.

This study was conducted about how understand the turnout decline phenomenon problem with new and progressive angle, regional identity. In the middle of study results that regional identity is a factor influence turnout, it is needed to focus on the fact that

network identity and cultural identity are good at making turnout up. This does not mean that the effort to make network among citizens strong with community activation programs is needed for QOL or happiness but for raising democracy. In addition, local festivals which blamed sometimes because of thinking them waste of taxpayer money are able to evaluated positively in terms of securement democratic legitimacy with this new concept, 'regional identity' through this study result.

Keywords: Regional identity, Turnout, Democracy, Turnout decline phenomenon, Region, Identity,

Student Number: 2012-22003